

竹馬故友들

글 / 임영규 사우

서울에 사는 고향친구들이 백수가 된후 노후를 재미있게 보내자고 모임을 시작 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열다섯 해가 지나고 칠십 중반이 됐다. 모여서 산에 가고 맛집 찾아 다니고 취미생활 하는게 우리를 소일 거리다. 산에는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수락, 도봉, 북한, 관악산을 차례로 가고 철쭉제가 있는 오월 말엔小白山으로 원정간다. 스무명으로 시작한 친구들이 칠순을 넘기면서 허리, 무릎 이상으로 여러명이 낙오 되고 나머지 열 두명이 요즘은 서울 둘레길을 돌며 체력 관리를 하고 있다. 솔직히 건강을 위해 산에 간다는건 핑계고 우리 친구들은 술이 좋아서 산에 간다. 물대신 막걸리 마시며 산에 오를 정도로 애주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올 3월 부터 도립, 국립공원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오만원 부과한다니 애주가들에겐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산행하다 보면 간혹 일진이 좋은 날은 등산길에서 만난 “58년 개띠” 인 니들과 동행, 합석할 때가 있다. 술과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분위기가 고조되면 진한 농담도 스스럼 없이 주고받으며 그 날은 맘껏 웃고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날이다. 또 산림보호를 위해 봄 가을에는 쓰레기 줍기 행사를 하는데 많이 주우면 회비에서 상금을 받는다. 그걸로 한잔 하고 오는 날은 기분 나이스다. 맛집으로 소문난 곳을 찾아 이곳 저곳 다니다가 주머니 사정에 맞고 고향음식을 잘하는 “안동 국시 집”을 단골로 정하고 매달 한번 모인다.. 묵사발, 파전, 고추전, 갈국시, 파로국밥이 우리가 먹는 메뉴다. 배고팠던 시절 끼니로 먹었던 음식이 이제는 별미가 됐다. 향수를 달래주는 음식이라 그런지 매번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특별 메뉴로 나오는 문어회에 安東燒酒(40도)를 마시면 톡 쏘는 맛이 일품이고 뒤끝이 깨끗해서 좋다. 취미는 한달에 두세번 만나는데 당구장, 기원, 그리고 콜라텍으로 나뉘 간다. 콜라텍은 콜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춤추는 곳이다. 호기심에 모두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입장료 천원 내고 홀에 들어가니 귀가 찢어지는 음악에 오색 불빛으로 황홀하다. 트롯트, 지루박, 부루스, 탕고, 자이브 음악에 맞춰 남녀 쌍쌍이 빙글빙글 돌아 가는걸 보니 別天地에 온 느낌이고 보는 것 만으로도 흥이 절로 난다. 6개월 배우면 입문할 수 있고 여기에 오면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자주 온다는 친구 얘기를 들으니 진짜 배워들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竹馬故友는 자주 만나도 허물이 없어 좋다. 옛날 같으면 상할아버지 나이인데 장수시대라 그런지 아직은 의욕이 넘치고 마음은 청춘이다. 인생은 언제 어디서 끝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과욕인지 몰라도 이대로 십년은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오는 일요일은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에서 “하이 파이프”하는 날이다. 야호!



▲ 뒷줄 왼쪽 두 번째가 필자

사 | 우 | 동 | 정

김벽수(보도) 사우회는 지난 2월 26일 제15대 한국방송기자 클럽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사우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 방송기자 클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열(보도) 사우회는 지난 2월 5일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TV) 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1년 4월까지 3년이다. 이 사우는 이에 앞서 하이트 진로 부사장을 역임한바있다.

최영범(보도) 사우회는 지난 1월 15일 효성그룹 홍보실장(부사장)으로 활동중이다. 이 사우는 SBS 보도본부장을 거쳐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한 바있다.

이선명(보도) 사우회는 지난 2월 1일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 했다. 이사우는 대한민국 관광의 경기중심시대를 열어 관광수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찬금 내신 분〉



김재백 (50만원)



정윤철 (30만원)



정군기 (30만원)



서경수 (10만원)

만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 주듯이...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 드리겠습니다. 조병화의 시 〈의자〉에 한 것귀다. 사우회 새 집행부가 묵은 의자에 앉았다. 27기시대 일꾼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닦고 조여 사용했는지 미세한 빼거덕 소리 한점 잡히지 않는다. 경로당에서 심부름하는 군번(?)으로 위용을 갖춘 3기 시대의 젊은 활력이 싱그럽고 상큼한 새 봄의 기운처럼 느껴진다. 사우회 신입생은 해

마다 늘어나고 있다. 살림살이 규모도 이에 비례하고 있다. 허나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 사우회의 안정적 재정 자립 속제를 풀기 위한 새 집행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걱정거리는 기우인 것 같다. 힘찬 고동 울리며 노 젓는 뱃사공(?)들이 믿음직 하다. 태평양, 대서양 파도를 헤치며 희망의 노래 부르며 안전 항해를 할 것이다. 3기 집행부,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500여 사우 그대의 힘이 되어 줄테니까

허인구(보도) 사우회는 지난 3월 14일 G1강원민방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 했다. 허사우는 방송생활 30년 만에 고향 춘천으로 금의환향 하게 되었다.

이찬휘(보도) 사우회는 지난 2월 26일 부터 한국방송기자 클럽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우는 카톨릭 관동대서 방송문화예술 강의도 함께하고 있다.

최상담(기술) 사우회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동안 국제방송센터 OBS 주관방송사에서 중계송출 요원으로 활동했다.

유지현(ANN) 사우회는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외신 대변인으로 활동 했다. 유사우는 지난 인천아시안 게임과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서도 외신 대변인을 맡은바 있다.

SBS 사우회보

www.sbssau.co.kr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2018년 4월 1일 제 46호

발행처 시민법인 SBS사우회 발행인 손석기 편집인 박동주 주소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605호(태양빌딩)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E-mail sbssau@daum.net

SBS 월드컵 중계 기대된다

평창 동계 올림픽 시청률 석권

SBS가 평창 동계 올림픽 중계에서 시청률 전 부문 1위를 차지 하는 등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올림픽 채널의 위상을 확고히 세웠다. 시청률 조사 기관 닐스코리아에 따르면 지상파 3사가 동시중계한 쇼트트랙, 피겨, 컬링 등 주요 종목에서 2049 시청률 89전 85승, 시청자수 89전 85승, 가구시청률 89전 78승, 광고 시청률 2.06%로 모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 했다. 방송 3사의 치열한 시청률 경쟁속에 이 처럼 SBS가 선점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던 동계 스포츠

중계를 꾸준히 해오면서 쌓아온 역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캐스트와 해설자들이 경기를 재미있고 쉽게 전달해 젊은 층의 인기를 독점했다. 이 여세를 몰아 오는 6월 러시아 월드컵 중계 시청률도 기대가 된다.



▲ 4월의 축제 진달래 동산 - 그림: 윤충의 사우

사우회 3기 시대 출범

2018 정기총회서 새로운 도약 다짐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와 함께 SBS 사우회 3기 시대가 출범 했다. 지난 2월 22일 여의도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린 총회서는 SBS 사우회 신입 손석기 회장을 비롯해 직능별 부회장으로 내정된 김용정(영상), 공영화(제작), 이기석(방송지원), 이찬휘(보도), 최상담(기술)사우 등 새 임원에 대한 인준을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이사로 박영만(ANN), 김혜리(광고) 사우를 선출했다. 현 임근배, 정영철 감사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유임시켰다. 이날 총회서는 2017년도 수지 결산 승인과 금년도 수지 예산안 승인, 사무처장의 직제를 사무총장으로 바꾸는 정관변경 의안을 차례로 처리 했다. 이에 따라 현 이관형 사우회 처장이 사무총장 직함과 함께 유임 되었다. 이어 열린 신규 회장이 취임식 자리에서 사우회를 한 단계 더 발전 시킨

공로의 뜻을 담아 떠나는 김수웅 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김회장은 이 임사를 통해 지난 4년동안 적극적으로 밀어주어 대과 없이 2기 시대를 마칠 수 있게 해준 사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우회 3기 시대의 문을 연 손석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회장이 이룬 업적을 이어받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사우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 했다. 손회장은 또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우회 3대 덕목의 가치이래 SBS 사우회를 화합과 평화와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BS 박정훈 사장은 어려운 방송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영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분사 근황과 함께 사우회 3기 시대 출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 좌측으로 김용정(부회장) 이기석(부회장) 손석기(회장) 공영화(부회장) 이찬휘(부회장)

◆ ◆ ◆ ◆ ◆

▲ 사우회 3기시대 출범, 새 집행부 봄기운 받아 순풍에 돛단 뱃길 열고 행여 봄기운 취해 봄 바람은 나지 마시길...

▲ SBS 동계 올림픽 중계, 금메달 감할 약에 갈채. 정치권이 평창! 평양! 공방할 때 SBS는 올림픽 방송을 평정? 하였노라.

▲ 새봄 동호회 활동 개시, 몸은 하나 마음은 열 두곳 있을 때 선택과 집중이 딱인데 뭇 풀이 술 집중이 문제지.

▲ 미투 열풍, 복면가왕도 가릴 수 없는 부끄러운 민낯 입춘(?) 조심하시길, 그래도 이 말은 괜찮겠지 내 사랑 컬링 영미! 영미!

봄철 आय회 가즈아

5월 17일 만나요

사우회는 5월 17일 봄철 आय회를 갖기로 했다. 지난 3월 23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린 3기 집행부 첫 운영위원회는 이같이 일정을 확정하고 장소는 사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우 모두가 공감하는 곳으로 떠나기로 했다. 해마다 आय회 장소 선정은 교통과 거리 감안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올 봄 आय회는 거리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우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정해진다. 사우회는 3기 시대 첫 봄철 आय회를 뜻 깊게 갖기위해 예년과 달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사우회는 장소 선정에 대한 사우 의견은 이달 말까지 사우회 홈페이지와 사무처에서 받기로 했다.

2018년 건강검진 실시

금년도 사우회 사우대상 건강검진이 지난 3월 2일 부터 실시되고 있다. 검진기관은 예년과 같이 서울 성모병원을 비롯해 강북삼성, 세브란스, 이대목동, 여의도성모, 일산병원, 하트스캔 등 일곱곳이다. 검

진료는 기본항목이 30만원, 기본에 추가 정밀검사를 추가할 경우는 40만원이다. 검진희망사우는 사우회 사무처에 신청하면 되고 배우자도 함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SBS社友漫評



“착실하게 심겠습니다”
SBS사우회 3기 시대 출범



SBS A&T

여러 선배님들과 30년의 열정으로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 열정과 패기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구 회장의 변〉 손석기 / 김수웅

새로운 모습의 사우회를 위해...

우리들의 정든 고향 SBS가 창사 서른돌을 앞두고 있고, 우리 사우회는 발족 12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SBS 사우회는 그동안 회원 모두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전임 회장단과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장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SBS 사우회는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 하나되어 화합하는 마당입니다. 요즘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사내 소통이 잘되는 수평적 기업문화입니다. 소통 잘되는 사우회를 위해 서로 돈독한 시간을 더 많이 갖고, 회원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들었습니다. 한때는 선후배와 동기간에 마음의 상처를 주고 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강요했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펼쳐 버

리고 미운정, 고운정으로 서로 위로하며 화해하고 동참하여, 사우회가 선후배의 깊은 정를 복원하는 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통하는 사우회, 서로 신뢰하는 사우회, 더 참여하는 사우회, 제가 바라는 사우회의 모습입니다. 3기 임원진과 운영회 위원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월이 오면 봄나들이 갑니다. 사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시고 부부동반도 물론 환영합니다. 시간 내서여 꽃구경 하시고, 이야기 꼭 웃으며, 활짝 웃으시는 회원님들이 보고 싶습니다. 어느 외국 회사의 슬로건 하나 보며 마칩니다. All for Freedom, Freedom for all. (자유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자유)



숙제를 남겨두고 떠나서...

먼저 사우회 사우 여러분께 감사의 큰절 올리겠습니다. 4년 동안 대과없이 임기를 마치 수 있게 된 것은 모든 사우들의 아낌 없는 성원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사우회를 맡았을 때 '즐겁고 보람된 사우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지향점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못 미쳤다면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뒤돌아보면 저에게 사우회 4년은 40년 현직에서 일 할때 몰랐던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씀하셨던 모양입니다. 이런 배움이 있다면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우

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정년이라는 종착역에 머물러 아까운 재능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우들이 재능으로 봉사하고 일한다는 자체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추진 했는데 끝내 결실이 없이 숙제를 남겨두고 떠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도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백두산을 오르고 대마도 탐방, 남도 기차 여행을 떠난 추억거리가 있었다는게 위안이 됩니다. 젊고 유능한 3기 집행부가 사우회를 더 즐거움이 넘치고 보람이 가득한 보금자리로 꾸꾸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사우회를 위해 힘이 되는 사우의 한 사람으로 함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기 임원진 및 운영위원회 위원



* (운) : 운영위원

동호회 새봄맞이 기지개

바둑, 음악, 당구회 새 단장

겨우내 움추렸던 동호회 야외행사가 새봄과 함께 활짝 기지개를 폈다. 골프동호회는 지난 3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아리지 컨트리클럽에서 시즌 오픈 라운딩을 가졌다. 이날 첫 골프 월례회는 4개조 16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새해 철원 한탄강 트레킹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 요산요수회는 지난 달 28일 행주산성 트레킹에 나섰다. 서울 강서습지 생태 공원을 출발해 행주산성 이르는 5Km 트레킹에는 20여명의 사우들이 참가해 한강변 싱그러운 봄 내음을 느꼈다. 음악감상동호회는 지난 2월 27일 서울 남산 국악

당에서 열린 대보름 명인전 공연을 관람 조선시대 궁중의식 관악 합주곡과 종묘제례악, 정선아리랑 금강산 타령 등 우리민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호회 일부 회장과 총무가 새로 선임되는 등 새봄맞이 단장을 했다. 바둑동호회는 그 동안 총무를 담당 했던 박오중 사우가 회장으로 새 총무는 이재모 사우가 맡게 되었다. 당구동호회도 김영식 총무가 회장으로 운영준 사우를 새 총무로 뽑았다. 음악동호회 역시 강동하 총무가 새 회장으로 이어 받았고 새 총무를 추후 선임 할 예정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방송 성공 요인

SBS 박이벤트추진단 총괄 PMO / 스포츠부국장 손근영



찬 바람이 부는 한겨울의 새벽 3시, 만물이 잠든 시간이지만 SBS 스포츠 중계 부조는 오히려 3시처럼 분주합니다. 북미에서 열리고 있는 스킨스케이팅 월드컵 생중계를 위해 PD들은 자막 인-아웃을 외치고 캐스터와 해설 위원은 윤성빈의 역주를 보며 사우팅합니다. “아~ 이번에는 최강 두쿠르스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우리 윤성빈 선수가 꼭 정상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라는 멘트가 이어집니다. 이른바 ‘월러바시정할’ 이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SBS는 동계스포츠 중계를 위해 새벽에도 이렇게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SBS는 1990년대 초반 개국과 함께 당시 비인기종목이었던 국제빙상연

맹(ISU)의 방송권을 확보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에 애정을 쏟았고, 평창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스키와 썰매 종목의 방송권도 확보해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SBS가 동계스포츠와 인연을 이어간 것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1등 방송의 가장 탄탄한 밑바탕이었습니다. 동계스포츠 중계가 일상화돼 있는 SBS 중계방송의 내공을 경쟁사들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캐스터들의 익숙한 목소리는 시청자들의 귀를 즐겁게 했고, PD들의 시아와 판단력은 그야말로 전문가다웠습니다. 평창을 겨냥한 사전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이전 빅이벤트 대

회에서 CG와 자막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개막 4개월 전부터 CG TF팀을 발족해 다양한 포맷의 자막을 미리 준비했고 차별화된 CG 정보 제공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캐스터와 해설위원들의 경쟁력도 탁월했습니다. 배기완, 배성재 등 SBS 캐스터들의 출중한 기량은 타사 캐스터들에겐 이른바 ‘넵사벽’이었습니다. 해설위원들도 한 수 위었습니다. 8년만에 돌아온 스피드 제갈성렬 해설위원은 웃음과 감동을 함께 선사했고 쇼트트랙 전이경, 피겨 방상아, 썰매 이세준, 컬링 윤형기 위원은 언제 나처럼 최고였습니다. 새 얼굴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4년 전 소치에서 선수로

인기를 끌었던 컬링 이슬비 위원은 ‘좋은 요정’으로 불리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쇼트트랙 조해리 위원은 ‘리포팅 중계’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해리포터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SBS는 올림픽 중계 사상 최초의 압도적인 1등을 달성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감사하게도 시청자들로 부터 박수와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안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한층 강화된 ‘SBS 스포츠’ 브랜드의 힘을 다가오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서도 멋지게 발산할 수 있도록 SBS 전 구성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현장에서〉 글 / 최상담 사우

내 가슴에 새긴 금메달

나는 나의 고향에서 내 인생의 금메달을 달았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해 배운 도독질(?)을 발휘한 자부심으로 내 가슴에 새긴 금메달이었다. 나는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두 대회에 한달여 넘게 IBC 국제방송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 했다. 현업 때 올림픽 방송에 참여하면 IBC에서 국제신호를 받아 UNi Ong Chang 2018 SPP(Sports Presentation) 전광판 운용업무를 맡았다. 각종 그래픽, 종목별 하이라이트 등 많은 올림픽 콘텐츠를제작해 VANUE Network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해 올림픽 방송상황과 경기와 경기사이에 올

경포대로 가는 길 나즈막한 야산이었던 곳이 올림픽 파크로 변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올림픽 동안 지구촌 다양한 사람들이 경기장과 강릉시내에 북적거려 활기가 넘쳤다. 이들은 하나같이 평창 올림픽이 최고다 라며 엄지척을 했고 친절한 한국인들에게 손 하트를 날렸다. 첨단 하이테크 LED 조명으로 빛나던 개폐회식 영상미, 드론으로 만든 오류기, 자원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어느 하나 나무랄 것 없이 역대 최고라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내가 지구촌 35억 시청자들에게 올림픽의 감동과 환희를 전하는 방송요원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 같다.



〈남해에서 온 봄 편지〉 글 / 김재백 사우

거제의 춘절단상



거제에 와서 가을, 겨울을 보내고 첫 봄을 맞았습니다. 추운 계절에 홀로피어 사랑 받은 동백꽃은 이제 매화, 개나리, 참꽃, 수선화에게 예쁜 모습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며칠전 외도에 갔더니 그야말로 군 방경영이더군요, 거제도도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큰 섬으로(일제2개)예부터 가난하게 살았지만 섬자체내의 산물로 자급자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625동안대 흉남부두에서 미군함미 무기를 다버리고 피난민을 가득 태워와 닻을 내린곳이 당시 거제도의 장승포항이었고 전쟁포로들을 수용했던 곳도 거제도였습니다. 거제도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그후 산업화와정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거제를 한국의 작은섬에서 세계조

선공업의 중심지로 부상시켰습니다. 거제도 해안선의 굴곡은 으뜸 중의 으뜸입니다. 그래서 조선소의 최고 입지조건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안선의 굴곡이 커서 판과 굵이 발달해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습니. 지난 6개월간 거제도를 살살이 구석구석 살펴보고서 곳곳이 경승지이고 관광지며 별장지임을 알게되고, 거제도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거제도는 이제 섬이 아닙니다. 가거대교와 세계에서 제일 깊은 해저터널이 부산과 한 시간반거리로 연결되고 부산-거제-통영이 2시간내 생활권으로 된지 오래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소득1위를 했던 거제시가 조선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호황기 5만명이

〈꽃할배의 유쾌한 도전〉

투캅스의 카미노 길

박건삼 사우와 정승화 사우 두 꽃할배(?)가 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처럼 사우회를 탈출해 순례자의 길 산티아고로 떠났다. 한 노인이 살아온 백년 세월을 코믹하고 유쾌하게 그린 가볍게 읽히지만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하게 하는 목직한 여운을 담은 작품이다. 두 사우는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4월 10일 유쾌한 도전에 나선다. 그리고 고향의 길에서 터득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귀국 보고회를 열어 함께 논할 것이라고 한다. 두 사우는 이 길을 떠나기에 앞서 제주도 올레길 전코스를 걷는 전지훈련을 통해 체력을 비축했다. 두 사우는 고등학교 선 후배 사이로 틈나면 여행을 함께 떠나는 투캅스다. 네발 히말라야등정, 남아공 희망봉, 등 국내외 곳곳에서 여행 동창회(?)를 가졌다. 사실 박사우의 이번 산티아고 순례는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걸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정 사우는 초행길로 든든한 가이드를 믿고 동행하게 된 것이다. 박건삼 사우는 10년 전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다녀온 후 '예순 여섯에 카미노를 걷다' 책을 펴냈다. 박사우는 카미노 데 산티아고 800km의 여정을 통해 고통과 고행을 수반하는 고독 뒤에 혼자만 느끼게 되는 행복을 맛 보았고, 인간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박사우에게 카미노는 깨달음의 스승이었고 카탈릭을 받아들이는 구도자의 길이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째 도전하는 프란치스코 박건삼의 '일흔여섯에 카미노를 다시 걷다'라는 여행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하다. 아마도 왜 이길을 걸어야 하는지 10년전에 못 찾은 정답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다. 박건삼 정승화 사우 투캅스가 걷는 카미노 들판의 바람에 실려 벌써 포도주 향기가 전해 오는 것 같다.



있습니다. 겨울기온은 중부지방보다 5~10도 높고 바람도 적으면서 주변 관광지(지리산, 섬진강, 부산, 통영, 남해, 한산도, 매물도, 외도, 지심도 등의 섬들)가 많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장기관광 기점체류지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주말에는 수선화가 활짝 핀 공곳이에 가을 생각입니다. 남도의 봄은 서울의 봄보다 더 길고 미세먼지도 없어 좋습니다. 매년 맞는 봄이지만 더 따뜻한 것같고 더 설레네요. 봄은 빛을 타고 오는줄 알았는데 아마도 저 앞 파도를 타고 오나봅니다. 만물이 경쟁적으로 소생하고 매마른 부지깽이도 땅에 꽃기만하면 움이 든다는 봄에 사우여러분들 더 건강하십시오. 심신이 불편한 분들도 회복하시길 빌고요! 거제 함 오세요!



▲ 봄어빵 손자와 함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故 엄광석 사우

◇경조사

축하합니다.

김재백 아들(1/14)
정운철 장남(2/3)
김세웅 장남(3/31)

애도합니다.

안승달 모친상(12/31) 이흥근 병부상(2/26)
김광열 부친상(1/22) 엄광석 별세(3/2)
정군기 병부상(2/1) 서경수 병모상(3/22)
성준호 배우자상(2/25)

◇회비내신분

연회비(1월~3월)

김국은 김충현 김혁태 김형석 김홍덕
소속자 신동파 윤공경 윤영미 조병식

종신회비

강이현 권동직 김성호 성재우 오진아
이종호 이흥근 장광호 장영희

◇회비안내

연회비 : 30,000원 종신회비 : 300,000원

우리는呢 계좌번호

회 비 납 부 1006-901-277104
경조사납부 1005-101-255925
협 한 회 비 1005-001-954097

(종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